

KNSI 현안진단 제103호

후진타오의 타이완 정책은 성공할 것인가?

-타이완의 UN가입 국민투표 실시와 양안관계¹⁾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타이완의 현 총통 천쉐이벤과 집권당인 민진당이 내년 3월 실시 예정인 총통선거와 함께 '타이완'이라는 국호로 UN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북미협상과 6자회담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북미 협상과 6자회담의 진전이 동북아질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시점에, 그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 쟁점이 서서히 수면 위에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타이완의 현 총통 천쉐이벤과 집권당인 민진당이 내년 3월 실시 예정인 총통선거와 함께 '타이완'이라는 국호로 UN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다. 9월부터는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따라서 중국과 타이완 관계(이하 양안관계로 지칭)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일본의 정치적,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개입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9월 크리스토퍼 힐이 타이완 문제와 북핵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하였지만 양안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반도정세 및 6자회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지난주에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와 관련하여 2012년 퇴진할 것으로 보이는 후진타오 총서기를 계승할 후계자 선출 및 이에 따른 권력구도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이번 전대회에서 현 정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은 중국정부의 타이완 해협의 정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완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한 것은 2000년 총통선거에서 타이완 독립을 강령으로

1) 이 현안진단 103호는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 과 동시게재 합니다.

삼았던 민진당의 천웨이벤이 당선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천웨이벤의 양안관계에 대한 태도는 강온 사이를 오갔지만 2008년 3월 총통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타이완 독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국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총통선거에서 역전의 계기를 삼아보자는 국내정치적 고려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강경책을 취하기 힘들 것이고 타이완 독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쉽게 모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을 예측한 중국은 2005년 3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타이완 독립추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 법은 협력과 대화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지만 타이완이 독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정한 점이 더욱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군사적 수단의 동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최근까지 계속 반복되었다. 그리고 천웨이벤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9월에는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부들은 국민투표 추진은 독립분열주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타이완 선거 코앞으로 닥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대회에서 타이완의 독립추구에 대한 경고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결과는 이러한 예측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후진타오가 전대회의 정치보고에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을 통해 양안 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라는 기존의 표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의 틀을 구축하고,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의 길을 열자”라는 내용을 추가된 것이 눈길을 끈다. 과거에도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항상 독립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같이 부각시켰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평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특징이 있다. 즉 후진타오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평화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중국이 이 시점에서 평화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내년 총통선거에서 양안과의 안정과 대륙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국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1996년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을 향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 군사적 압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평화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당 후보의 운신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천웨이벤의 양안관계의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런데 현

실성이 없는 군사적 위협은 이러한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타이완 독립에 대한 동정, 혹은 지지여론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천쉐이벤은 미국 정부의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여론은 80% 가까이 타이완의 UN가입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들어 자신의 시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 시기 후진타오의 타이완 정책은 타이완을 둘러싼 국제관계나 타이완 내의 정치세력 사이의 역관계를 고려한 비교적 합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의 새로운 정책이 성공할지의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타이완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50% 참여와 50%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관건은 50% 이상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는가에 있다. 국민투표의 참가자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가 핵심적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총통선거에서도 민진당 지지세력의 적극적인 투표를 이끌어내어 총통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민투표가 UN가입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타이완인들의 의지가 민주적으로,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양안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민당 진영에서도 UN가입안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타이완이 아니라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UN가입을 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타이완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후진타오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 통치권위도 커다란 상처를 받고 중국의 정치불안을 촉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안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시간을 두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후진타오의 평화카드가 내년 3월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타이완 독립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 다시 군사적 압박 카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지, 3월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국민투표에서 UN가입에 대한 찬성이 확인될 경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어떤 정책적 수단을 택할 수 있을지 등이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 개입보다는 위의 각 경우가 북미협상과 6자회담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대비책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2007/10/31)

